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속도 낸다

정부 “구체적 일정 논의 시점”

동북아에서 올해 하반기 최대의 ‘외교 이벤트’가 될 수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주도해 3국 협력체계 복원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공간도 마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중일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연내 개최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과 달리 중국은 일본의 역사인식 및 영토 문제를 3국 협력 정상화와 사실상 연계하며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중국은 일본 역사인식의 척도가 되는 아베 총리의 담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하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아베 담화는 3국 정상회의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그동안 관측돼 왔다. 아베 담화에는 ‘한 고개’를 넘는 시점부터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달 초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한중일 외교장관은 “금년 중 가능한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는 데 이미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더욱이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 차례 열고,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아치 소타로(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방문을 받는 등 최근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정 조율하는 문제만 남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10월이나 11월 중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을 논의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温家宝)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필리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의 계기에 처음으로 열렸고 2008년부터는 아세안 회의와 별도로 매년 한중일 3국을 돌며 개최됐지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여도 문제 등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중국 텐진 폭발사고는 人災

사고회사 대주주는 전직 텐진항 공안국장 아들

단순 자재 창고 역할하다 두달전 유독물질 취급 허가

거리 확보·적재 총량 규정 위반...안전평가도 엉터리

지난 12일 중국 텐진(天津)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사고가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17일 사고가 발생한 루이하이(瑞海) 물류회사의 인허가 과정과 유독 화학물질 관리 운영에 상당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거듭하며, 연내 개최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루이하이사는 2012년 말 설립 당시만 해도 일반 자재를 보관하는 단순 창고 역할만을 허가받았으나 사고 발생 2달 전인 6월 말에야 부라부라 유독 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취급 허가를 받기 전에도 유독 화학물질을 계속 취급해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 회사의 대주주인 동(董)모씨는 지난해 지방으로 별세한 전직 텐진항 항구 공안국 국장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유독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집착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회사가 또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회사의 창고 규모를 보면 문제가 된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24t만을 보관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700t의 시안화나트륨을 보관 중이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 회사가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거리 확보, 적재 총량 등에 관한 규정을 대거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에서는 550m가 넘는 유독 화학물질 창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 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운영되는 게 금지되지만 이 회사의 물류창고는 주거지역에서 6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회사는 외부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도 유야무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이와 관련,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갑(甲)급 평가

기관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함에도 이 회사를 평가한 기관은 을(乙)급 평가기관이었다”면서 부실한 안전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외신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소방관들의 초기 대응이 사고의 규모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물류창고 화재가 신고되자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는데 창고에 적재된 탄화칼슘이 소방용수와 반응해 대량의 폭발가스가 생성됐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석연치 않은 응도 변경을 잘 모르는 소방관들의 오판이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도 이같은 의혹을 염두에 두고 직권 남용, 직무유기, 법규 위반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 언론들은 이 사고 이후 텐진시 당국이 6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한번도 시장이나 당서기와 같은 책임자는 나오지 않은데다 상당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등 당국의 부실한 언론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12일 발생한 초대형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16일까지 각각 112명과 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2천명 강제징용”

中 헤이룽장성, 일본군 문건 공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패전 70주년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1940년대 일본군이 한국 여성 2000명을 한꺼번에 위안부로 끌고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7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당안국(기록보관소)은 최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위안부’ 문건을 공개하고 “1941년 10월 일본군이 무단장(牡丹江) 쉰이양(緜陽) 한충허(寒蔥河)지역에 군 위안소를 열면서 한국여성 수십명을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당안국이 공개한 제890호, 제1천64호 문건은 1941년 10월 20일 일본군 쉰이양 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다카하시(高橋) 대장이 같은 부대 쉰이양(緜陽) 대장에게 부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들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징용한 2000여 명 가운데 일부’라고 밝혔다고 기록했다.

특히 이들 문건은 일본군이 징용된 한국여성들에게 “한충허지역에 ‘일본군 전용 요리점’을 연다”고 속여서 끌고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문건은 요리점으로 가장한 군 위안소의 설립 과정과 날짜, 계급별 상대자와 허용된 ‘오락 시간’까지 적고 있다. /최현기기자 cki@

인도네시아 항공기 추락

승객 54명 생존자 파악 안돼

인도네시아 당국은 동부 파푸아 주에서 54명을 태우고 가다 산간 지역에 추락한 트리키나 항공 소속 ATR42기를 17일 발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구조대와 수색 대원들을 여객기 추락지점에 급파, 수색을 펼친 끝에 사고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추락지점이 산악지대여서 자동차로 접근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사고기 추락 현장에서 생존자가 발견됐는지는 즉각 파악되지 않았다. 국내선 항공사인 트리키나 항공 소속의 프로펠러기 ATR42-300은 전날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승객 49명, 승무원 5명을 태우고, 파푸아 주 주도인 자야푸라의 센타리 공항을 떠나 인도네시아 옥시빌로 향하다가 이날 오후 3시께 옥시빌 관제탑과 연락이 끊겼다.

사고가 이륙할 때 날씨는 양호했으나 착륙 예정 시간 내에 옥시빌 근처에 강한 비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태가 악화됐다.

파푸아 동쪽 지역은 정글이 울창하고 지형이 험한 산악 지역인데다 낮은 비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 상황이 급변할 때가 많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항공기 운항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ATR은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소형 항공기 제작사이며, 이 항공기가 제작했던 대만 푸싱항공 소속 ATR-72-600형 국내선 여객기는 지난 2월 송산공항에서 이륙 직후 고가도로를 들이받고 추락해 40여 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브라질 시위대 “대통령 물러나라”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위대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가 ‘지우마 아웃(OUT)’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날 시위는 브라질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친체된 경제와 대규모 부패 혐의로 인해 호세프 정권 지지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위대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가 ‘지우마 아웃(OUT)’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날 시위는 브라질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친체된 경제와 대규모 부패 혐의로 인해 호세프 정권 지지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맥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맥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주 흥맛길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층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